

2015년 제3차 경찰국어(2015. 9. 19. 시행)

총평 및 해설

윌비스(Willbes) 국어 전임강사 박우찬

<총평>

이번 경찰국어 시험은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고전문학 영역은 작품 해석을 주고 나서 문학 문제를 출제하던 이전의 경향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조, 한시, 가사, 언해 작품을 한문 또는 원문으로만 제시하여 해당 작품을 읽어보지 못한 수험생은 문제를 풀 수 없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시험에서는 고전문학 문제에서 국어 점수 편차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문학의 기본이 작품의 일차적 해석에 있다는 점에서 수긍되기도 있지만,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믿고 공부했던 국어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편, 『두시언해』에 실린 작품(「강촌」)이 출제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두시언해』는 최근에 법원직렬 국어에서 가끔씩 출제되어 왔을 뿐, 다른 직렬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고유어와 속담은 15년 1차, 2차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다가 이번 3차 시험에서 난도가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문학 문제와 마찬가지로 점수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법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어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변별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두시언해와 연계되어 출제된 국어사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 3차	문항 수	세부 내용	출제 영역
문법 이론	6	언어의 성격1, 단어 형성(비통사적 합성어)1, 형태와 통사 복합1, 문장 구조(안긴문장)1, 국어의 특성1, 국어사(근대 국어)1	언어와 국어, 형태론, 통사론, 국어사
어문 규범	5	한글 맞춤법(사이시옷)1, 맞춤법과 문장 규범 복합1, 띄어쓰기1, 문장부호1, 문장규범(중의성, 모순)1,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규범
문학	6	시조(「다정가」)와 한자1, 가사(「관동별곡」)2, 『두시언해』(「강촌」)1, 현대시2	고전문문, 현대시
독해와 작문	0		
어휘	3	고유어1, 속담1, 한시(「송인」)와 한자성어1	고유어, 속담, 한자, 한자성어

<앞으로의 공부 방향>

이러한 변화된 출제 경향으로 볼 때 3차 시험은 2차 시험에 비해 평균 점수가 더욱 낮아지고, 국어 조정 점수는 2차 시험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출제 경향이 경찰국어만의 시험 경향을 확립하려는 큰 계획의 하나가 아닌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경찰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문법 부분은 앞으로도 일반 공무원국어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차 시험 해설에서도 적은 바와 같이 문법 이론 부분은 기본 개념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비록 음운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음운론을 포함하여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고루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문 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문장 규범에서 선택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원리를 중심으로 두루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한글 맞춤법’은 이번에도 띄어쓰기, 문장 부호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출제된 영역이므로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규범도 경찰국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므로 비중을 두어서 유형별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어의 역사도 15년 2차, 3차 시험에 걸쳐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중요한 문헌, 각 시기의 특징 정도는 공부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문학이 문제입니다. 15년 1차 시험부터 문학이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점수 편차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제 고전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각 시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시기의 대표적 작품을 읽어두어서 문학을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문학 작품과 연계된 한자, 한자성어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니 앞으로 문학 공부와 한자, 한자성어, 속담을 병행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침 무료특강으로 ‘문학과 고사성어’ 수업을 월비스고시학원에서 하고 있으니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공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출제된 작품인 「다정가」, 「송인」과 한자성어 ‘戀戀不忘’은 제가 아침특강에서 최근에 다룬 바 있습니다.

어휘는 일반 공무원국어 어휘를 준비할 때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을 제외한 모든 직렬이 국어가 필수과목인 데 비해, 경찰국어는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평소에 국어에만 시간을 들이는 것이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무원국어에서 출제된 고유어, 속담, 한자, 한자성어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경찰국어 기출문제를 자세하게 풀어 보면서 경찰국어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일반 공무원국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각 영역의 핵심을 정리한다면 16년 1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국어는 공직생활에서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중요한 소통수단이자 우리의 교양을 길러주는 인문학의 길목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어의 역할에 맞는 경찰국어 시험 경향이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선택과목인 국어를 준비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겪었을 국어 수험생 여러분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국어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그동안의 경찰직 기출 문제는 ‘공무원 국어 연구소’ <http://cafe.daum.net/woo-chan>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에서 ‘박우찬 국어’를 검색해도 됩니다.

1. 국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어는 ‘아름다운 고향’과 같이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특징이 있다.
- ② 일반적으로 국어의 단모음은 ‘ㅣ,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ㅟ’ 열 개가 인정되고 있다.
- ③ 국어는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작은집, 벗어나다’ 등과 같은 파생어와 ‘군소리, 날고기’ 등과 같은 합성어가 많다.
- ④ 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높임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크게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1. 정답 ③ [체감 난도 下] 월비스 경찰문풀 적중, 마무리 특강 적중

<해설> ③ × ‘작은(어근)+집(어근), 벗어(어근)+나다(어근)’는 합성어이고, ‘군(접두사)소리(어근), 날(접두사)고기(어근)’는 파생어이다. ‘군-’은 ‘쓸데없는’의 뜻을, ‘날-’은 ‘익히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① 국어에는 관형어 ‘아름다운’이 체언 ‘고향’을 수식하거나 그 밖에 부사어가 용언을 수식하는 등의 구조가 나타난다.
- ② 국어는 단모음이 10개나 되는 특징이 있다.
- ④ 국어는 상하관계를 중시하던 사회구조 때문에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 높임법에는 문장의 주체, 문장의 객체, 대화의 상대를 높이는 높임법이 있다.

2. (가)~(다)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주원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나)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 (다) 영희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 ① (가)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 ‘주원’이 생략되어 있다.
- ② (나)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성실한’도 안긴문장이다.
- ③ (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부사어 구실을 하고 있다.
- ④ 위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문장 속에 안긴문장이다.

2. 정답 ① [체감 난도 中] 월비스 경찰문풀 동일지문 완전적중

<해설> ① × 문장 성분 중의 하나가 생략된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한다. 관계 관형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관계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다. (가)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 ‘땀’이 생략되어 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은 ‘땀이 이마에 흘렀다. 그 땀을’을 관계관형절로 만든 구조이다.

- ②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그 문장의 성분으로 기능하는 홑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그가 성실한”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뒤의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그가 성실한 사람임”도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 목적어를 구성하는 명사절이다. 관형절과 명사절은 안긴문장이 된다.
- ③ “아는 것도 없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없이’는 부사이지만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
- ④ (가)는 관형절, (나)는 명사절, (다)는 부사절로 각각 문장 속에서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를 이루고 있다.

3. 문장의 의미가 가장 명확한 것은?

- ①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 ②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을 두 개씩 주셨다.
- ③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 ④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3. 정답 ② [체감 난도 下] 월비스 경찰문풀 동일지문 완전적중, 마무리 특강 적중

<해설> ② 접미사 ‘-씩’이 붙어 ‘어머니께서 사과 두 개, 귤 두 개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만약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을 두 개 주셨다.’라고 한다면 중의적 문장이 된다.

① 의존명사 ‘것’이 ‘모양새’ 또는 ‘사실’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중의적 문장이 된다. 그가 걸음을 걷는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의미와 그가 걸음을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③ 모순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문장이다. ‘이상(以上)’은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 “한 잔 이상”은 한 잔을 포함하여 그 위의 수량을 가리킨다. 따라서 앞 절의 커피 한 잔과 모순되는 표현이다. → 두 잔 이상

④ 웃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한 문장이다.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첨표를 활용할 수 있다.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 또는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으로 고칠 수 있다.

4. ㉠~㉣ 중 고친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나에게는 고향을 ㉠떠난지 오래된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뜻한것이 있어 고향을 떠나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요리 대회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나에게도 그 ㉢친구처럼 나만의 꿈이 있습니다. 꿈을 위해 소중한 하루를 살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 나도 꿈을 ㉣이룰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 ① ㉠ 떠난지 - 떠난 지
- ② ㉡ 뜻한것 - 뜻한 것
- ③ ㉢ 친구처럼 - 친구 처럼
- ④ ㉣ 이룰수 - 이룰 수

4. 정답 ③ [체감 난도 下] 월비스 경찰문풀 적중

<해설> ③ × 조사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처럼’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앞의 체언에 붙여 쓴다. → 친구처럼

① ‘지’가 경과한 시간을 뜻할 때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쓴다.

②④ ‘것’과 ‘수’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쓴다. ‘것’은 사물·일·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가리키는 말이고,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힘이나 가능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幽深호도다 → 한가하다, 그윽하다

③ 한 病 → 많은 병

《작품 해제》 강촌(江村)

淸江一曲抱村流(청강일곡포촌류) 長夏江村事事幽(장하강촌사사유)

自去自來堂上燕(자거자래당상연) 相親相近水中鷗(상친상근수중구)

老妻畫紙爲碁局(노처화지위기국) 稚子敲針作釣鉤(치자고침작조구)

多病所須唯藥物(다병소수유약물) 微軀此外更何求(미구차외갱하구)

<해석> 맑은 강물 한 굽이가 마을을 안고 흐르니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한가하다.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늙은 아내는 종이에 그려 장기판을 만들거늘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드는구나.

병이 잦아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약물이니,

조그만(미천한)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해제>

1. 길잡이: 이 시는 두보가 49세 여름 되던 해에 성도에 초당을 짓고 한가로이 지내던 시기에 지은 작품이다.

2. 주제: 여름날 강촌의 평화로움과 이에 만족하며 사는 한가로운 삶, 안분지족(安分知足)

3. 특징

① 7언 율시. 원근법을 사용하여 시선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② 선경[수련(首聯), 함련(頷聯)]과 후정[경련(頸聯), 미련(尾聯)]의 시상 전개

③ 함련(頷聯)과 경련(頸聯)에서 절묘한 대구가 나타난다.

7. 단어의 형성 방법이 서로 다른 것끼리 묶인 것은?

① 늦잠 - 밤낮

② 앞뒤 - 똥오줌

③ 힘들다 - 앞서다

④ 맛있다 - 힘차다

7. 정답 ① [체감 난도 中] 월비스 경찰문풀, 마무리 특강 적중, 경찰기출 유사

<해설> 합성어는 어근의 배열 방식이 문장규칙에 맞는지 어긋나는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① ‘늦(은)잠’은 어말어미가 생략되었으므로 우리말 문장규칙에 어긋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밤낮’은 명사의 나열이므로 우리말 문장규칙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앞뒤’, ‘똥오줌’은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힘(이)들다’와 ‘앞(에)서다’는 모두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맛(이)있다’와 ‘힘(이)차다’는 모두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8. 문장 부호의 용법 설명 중 옳은 것은?

제목: 3 / 4 분기 경력사원 모집에 대한 안내	
1. 분야:	총무 관리
2. 대상:	남·여, 나이[年齡] 제한 없음
3. 기한:	2015. 9. 19
4. 인원:	○명
5. 조건:	근무 경력에 따라 연봉 결정

- ① 쌍점은 앞말과 뒷말을 각각 띄어 써야 한다.
- ② ‘3 / 4 분기’에서 빗금의 띄어쓰기는 옳게 사용된 것이다.
- ③ ‘나이[年齡]’에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보일 때에는 대괄호를 사용한다.
- ④ ‘2015. 9. 19’에서 연월일을 숫자로만 쓸 때에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8. 정답 ③ [체감 난도 下] 월비스 경찰문풀, 마무리 특강 적중

<해설> ③ 대괄호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年歲’는 연세로 읽는다.

- ① 원칙적으로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 ② 위의 경우에 빗금의 앞과 뒤는 붙여 쓴다.
- ④ 마침표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따라서 마지막 일자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9.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6시가 안되서 일어났다.
- ② 어디를 가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다.
- ③ 지금부터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④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행한다.

9. 정답 ② [체감 난도 下] 월비스 경찰문풀, 마무리 특강 적중

<해설> ② ‘가든지’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든지’를 쓴다. 가던지(×)

‘나름’은 ((명사, 어미 ‘-기’, ‘-을’ 뒤에 ‘이다’와 함께 쓰여)) 그 됄됨이나 하기에 달림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앞의 “하기”와 띄어 쓴다.

- ① 안(부정부사)√돼서(되어서). ‘6시가 되지 않아서’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안(아니)’은 부정 부사임을 알 수 있다. 동사 ‘되다’의 어간에 어미 ‘어서’가 붙으면 ‘되어서’가 되고, 모음 ‘ㅛ’에 ‘ㅓ’가 오면 ‘내’로 쓸 수 있다.
- ③ 지금부터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있다’가 주체 높임법 중에서 간접 높임에 쓰일 때에는 형용사이므로 ‘있으시다’가 된다.
- ④ 이 배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행한다. ‘싣다’는 ‘물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 배,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리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는 ‘태우다’라는 타동사를 써야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된다.

10. (가) ~ (라)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나) 어서 먹어라.
(대) 영선이가 철이에게 꽃을 주었어요.
(라) “참 재미있었다.”라고 말할까?

- ① ㉠의 ‘떠나가고 있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한 동작상 표현이다.
- ② ㉡는 명령문으로 주로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와 같은 어휘들이 서술어로 사용된다.
- ③ ㉢는 세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으로 ‘철이에게’는 보어이다.
- ④ ㉣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참 재미있었다라고 말할까?’가 된다.

10. 정답 ① [체감 난도 下] 율비스 경찰문풀 적중

<해설> ① “떠나가고 있네”는 떠나는 행동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한 동작상 표현이다. 여기서 ‘있다’는 ((주로 동사 뒤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② 명령문에는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와 같은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되지 못한다.

③ ‘철이에게’는 필수 부사어이다. 서술어 ‘주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④ 참 재미있었다고 말할까? 간접 인용격 조사로 ‘고’를 쓴다.

11. 괄호에 들어갈 한자어로 옳은 것은?

- 梨花에 月白 하고 銀漢이 三更인 제
一枝春心を () | 야 아라마는
多情도 병인 냥하여 좀 못 드러 흥노라
-이조년, 「多情歌」

- ① 子規 ② 細雨 ③ 陰雨 ④ 錦繡

11. 정답 ① [체감 난도 上] 월비스스 아침문학특강(9.15.) 작품

<해설> 子規(자규)는 소쩍새를 말한다.

《작품 해제》多情歌(다정가)

- 梨花(이화)¹⁾에 月白(월백)하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²⁾인 제,
一枝春心(일지춘심)을 子規(자규) | 야 아라마는
多情(다정)도 병인 냥 하여 좀 못 드리 호노라.

<해석> 배꽃에 달빛이 하얗게 비치고 은하수가 흐르는 한밤인 때,
가시 끝에 어린 봄의 마음을 소쩍새가 알겠냐마는
정미 많음도 병인 양하여 잡 못 들어 하노라.

1) 배꽃, 배꽃은 5월경에 핀다.

2)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시(子時)라고도 함.

1. 작가: 이조년(李兆年)

2. 주제: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서

3. 특징

①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시상전개

② 백색 이미지(배꽃, 달빛, 은하수)의 중첩

③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소쩍새의 울음소리)의 조화

④ 의인법(나뭇가지)과 직유법 사용

12. 한시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洞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錄波

① 心心相印

② 教外別傳

③ 麥秀之嘆

④ 戀戀不忘

12. 정답 ④ [체감 난도 上] 월비스 아침문학특강(9.15.) 작품, 7월 아침문학특강 고사성어

<해설> 위 시는 ‘이별의 슬픔’을 주제로 하는 정지상(鄭知常)의 한시 「송인(送人)」이다. 이별의 정서와 연맥이 닿는 한자성어는 戀戀不忘(연연불망)이다. 戀戀不忘(연연불망)은 그리워서 잊지 못함을 뜻한다.

①② **心心相印(심심상인)**과 **敎外別傳(교외별전)**은 마음과 마음으로 뜻이 통함을 뜻한다. 선종(禪宗)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에서 유래한다. 직역하면 **心心相印(심심상인)**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는 것을 뜻하고, **敎外別傳(교외별전)**은 말로 가르치는 것과 별도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뜻한다.

③ 麥秀之嘆(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뜻한다.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밭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작품 해제》 송인(送人)

雨歇長堤草色多(우혈장제초색다)	비 그친 긴 강둑엔 풀빛이 짙어 가고,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임 보내는 남포에 슬픈 노래 일어나네.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대동강 물이 언제 다 마를 날 있으랴,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이별하며 흘린 눈물 해마다 물결에 보태지고 있을지니.

<해제>

1. 작가: 정지상(鄭知常)

2. 주제: 이별의 슬픔

3. 특징

① 多(다), 歌(가), 波(파)가 운자인 7언 절구이다. 기(起)구의 대동강 주변의 풀(자연)과 승(承)구의 슬픔(인간)이 겹주어지고, 전(轉)구의 강물(자연)과 결(結)구의 눈물(인간)이 겹주어진다.

② 전구와 결구에서는 도치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잘 표현하고 있다.

13.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로 옳은 것은?

요즘 청년들은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취직 준비를 한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그 청년들 중에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온갖 어려움을 겪은 아주 야무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면접관들은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에도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회사에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 | | |
|--------|--------|
| ① 가납사니 | ② 간살쟁이 |
| ③ 고작부리 | ④ 대갈마치 |

13. 정답 ④ [체감 난도 上] 박우찬 국어 기본서 제2권 어휘, 서울시 9급 14년 기출 유사 <해설> ④ 대갈마치: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가납사니: 쓸데없는 말을 지껄이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 말다툼을 잘하는 사람
② 간살쟁이: 간사스럽게 몹시 아양을 떠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③ 고작부리: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 몸이 약하여서 늘 병치레를 하는 사람.

14. 밑줄 친 속담 중 사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절에 간 색시처럼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내 처지가 정말 싫다.
② 실없는 말이 송사 간다는데 무심하게 한 말이 큰 소동이 될 수도 있으니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라.
③ 우리 과장님 속으로는 탄마음이 있으면서 오늘도 점잖은 척 시치미를 떼고 계시네. 우리 과장님은 아니 먹은 최 보살 같아.
④ 오늘 억지로 사람을 만나러 나갔는데 나온 사람이 몸은 왜소하고 얼굴은 생기도 없어서 꼭 씻은 배추 줄기처럼 많이 아파 보이더라.

14. 정답 ④ [체감 난도 上] 박우찬 국어 기본서 제2권 어휘

<해설> ‘씻은 배추 줄기’는 ‘얼굴이 희고 키가 현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문장상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다. 씻은 배추 줄기 ≒센 말 불기짝 같다·씻어 놓은 흰 죽사발 같다.

- ① 절에 간 색시: 「1」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2」아무리 싫어도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② 실없는 말이 송사 간다: 무심하게 한 말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아니 먹은 최 보살: 『북』 무슨 일을 하거나 속으로 탄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시치미를 떼고 점잖은 척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의 단어 표기가 옳은 것은?

㉠머릿기름을 바르고 나타난 서울 손님은 음료수를 마시자마자 마을에 ㉡전셋집 나온 곳이 있는지 물었다. 마침 김 씨네에 나온 빈 방이 있어 함께 가 보았다. 김 씨는 어디에 갔는지 ㉢코뻐기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 없는 집에 ㉣암탉들은 서울에서 온 손님이 신기한 듯 서울 손님에게로 모여들었다.

- ① ㉠ ② ㉡ ③ ㉢ ④ ㉣

15. 정답 ② [체감 난도 中] 월비스 경찰문풀, 마무리 특강 적중

<해설> ② 한자어 ‘전세(傳貰)’와 고유어 ‘집’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전세집/전센집]으로 발음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있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① 머릿기름. 고유어 ‘머리’와 ‘기름’이 합성어이다. [머리끼름/머린끼름]으로 발음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있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③ 코뻐기. 어근 ‘코’에 접미사 ‘-뻐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암탉.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는 ‘암-’의 형태가 원칙이지만 ‘암-’이 닭, 병아리, 개, 강아지, 기와, 것, 당나귀, 돼지, 돌쩌귀와 결합하면 ‘암ㅎ’의 형태가 되어 뒤의 어근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만든다.

16. (가)~(예)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우리는 언어를 수단으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산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매일매일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는데, 실제 언어 사용에서 항상 동일한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 심지어 아직 어린아이일지라도 문장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익히고 연습하여 발화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를 자원으로 하여 문장의 틀에 적용하거나 혹은 틀을 조금씩 변형하여 새로운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 어린 시절에 흔히 부르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등으로 이어지는 노래를 기억할 것이다. 이 노래는 꼬리 따기 노래의 일종으로, 동일한 문장 구조이지만 각기 다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이 끝없이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나) 언어의 기호가 다른 기호와 차이점이 있다면 ‘의미’인 내용이 ‘말소리’라는 형식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 기호에서 내용과 형식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에서 ‘사과’라는 언어 형식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 사과라는 의미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먹는 과일 사과를 두고 한국 사람들은 ‘사과’라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Apple(애플)’이라고 하며, 독일 사람들은 ‘Apfel(애플)’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苹果(핑궈)’라고 한다. 먹는 사과를 나타내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이와 같이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 관련이 없다.

(다) 한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재미로 서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거나, 세상의 사물 이름을 달리 붙여 말해 보는 놀이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서로 이름을 달리 부르면서 깔깔대며 웃거나, 사물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놀이를

㉮ 조선 시대에 간행된 책을 보면, 우선 표기법이 현대와 달라서 읽기에 생소하고 단어의 뜻도 많이 다르며, 문장의 구성 방식도 현대와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반도라는 공간 안에서 시간차를 두고 한국어라는 언어가 서서히 변화해 왔음을 보여 준다. 과거를 향해 시간을 되돌릴수록 지금과의 시간적 거리만큼 언어의 변화 정도도 커지게 마련이다. ‘△’은 옛날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소리도 남지 않고, 표기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현재 ‘짤지’ 등에 쓰이는 ‘지’는 김치를 뜻하는 순우리말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과정을 거친 끝에 ‘디히>지히>지’가 된 것이다.

16. 정답 ② [체감 난도 下] 율비스 마무리 특강 적중

① (가)는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고 있다. 동일한 문장 구조이지만 각기 다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이 끝없이 생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③ (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주제로 한다. 자의적인 약속이 사회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개인이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데, 그러한 성격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④ (라)는 언어의 역사성을 주제로 한다. 표기법, 문장 구성 방식, 어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가) 눅히고 望望高고臺디 외로올샤 穴혈望망峰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千천萬만 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른다.

(나) 江湖호애 病병이 겁퍼 竹箑林님의 누엇더니,
關關東동 八팔百백 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드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다) 나도 즘을 찌여 바다할 구버보니,
기픽를 모르거니 7인들 엇디 알리.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萬落낙의 아니 비친 디 업

(라) 千천年년 老노龍룡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晝晝夜야의 흘녀 내여 滄창海海에 니어시니,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日雨우를 디련는다.
陰陰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甲) 峰봉마다 잊쳐 잊고 굻마다 서린 귀운,
물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귀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돌고자.
- (乙) 鳴명沙사길 나근 물이 醉취仙선을 빚기 시러,
바다흠 겹티 두고 海海棠당花화로 드러가니,
白백鷗구야 ㄴ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나.
- (丙) 天텨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亭의 올은말이,
바다 ㅂㄱ 하눌이니 하눌 ㅂㄱ 므서신고.
굿득 노흔 고래 ㄴ이라서 놀래판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느디고.

17. (가)~(사)를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17. 정답 ④ [체감 난도 上] 박우찬 국어 기본서 제2권 문학, 국회직 8급 15년 기출 유사 <해설> (나)는 서사, (다)는 결사에 해당한다. (가), (라), (마)는 금강산의 여정을 서술한 부분이고 (다), (바), (사)는 동해안의 여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부임지 → 금강산 → 동해안’으로 가는 『관동별곡』의 여행 경로를 알고 있다면 선택항은 ④만 가능하다.

18. (가) ~ (사) 중에서 금강산에 대하여 표현한 것은?

18. 정답 ③ [제감 난도 上] 박우찬 국어 기본서 제2권 문학
 <해설> (가)는 금강산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을, (라)는 화룡소의 모습을, (마)는 중향성의 모습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작품 해제》 관동별곡(關東別曲)

- (나)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창평(昌平)에 은거하였더니, 강원도 관찰사 임무를 맡기시니, 아아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끝이 없다.
- (가)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오랜 세월 지나도록 (기개를) 굽힐 줄 모르는가.
- (마) 봄마다 땃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저 기운을 흠어 내어 인재를 만들고자.
- (라) 천년 묵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흘러 내려 넓은 바다에까지 이어졌으니,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충분한 비를 내리려 하는가.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
- (바) (소리 나는) 모랫길이 익숙한 말이 (자연에) 취한 신선을 빗기 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핀 곳으로 들어가니, 흰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 (사) 하늘의 맨 끝을 끝내 못 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득 성난 고래(성난 파도) 누가 놀라게 하였기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 (다)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리. 밝은 달(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에 아니 비친 데 없다.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꽃꽃」-
(나)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 「폭포」 중에서-
(다) 흠에서 자란 내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초를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향수」 중에서-
(라)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형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유치환, 「행복」 중에서-

19.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1연과 2연은 문장 구조와 시어의 대구를 통해 통일성 있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는 폭포의 모습을 통해 양심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 ③ ㉢은 고향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 준다.
- ④ ㉢에서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을 넘어 '한 망을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으로 태어나는 사랑의 의미는 행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 준다.

19. 정답 ① [체감 난도 上] 박우찬 국어 기본서 제2권 문학

<해설> ① × 1연과 2연은 문장 구조의 대구와 시어의 병치를 통해 주제를 중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세히 보고 난 후에야 이름 모를 풀꽃이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래 보고 난 후에야 그 풀꽃이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풀꽃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너'(사람)도 찬찬히 들여다보고 오래 보아야 '너'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확산된 주제가 3연에 나타난다.

- ② 폭포의 모습을 통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비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③ 고향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시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세상의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 의지하는 두 사람의 애뜻한 사랑을 양귀비꽃으로 표현하면서 행복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1, 2연의 내용을 의미하는 대용 표현이다.
- ② ㉡는 '인격 또는 학식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는 의미이다.
- ③ ㉢은 '함초롬'의 방언이다.
- ④ ㉢은 '애뜻하게 그리운'을 나타낸다.

20. 정답 ② [체감 난도 中] 박우찬 국어 기본서 제2권 문학

<해설> ② 나타(懶惰)는 게으름, 나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불의에 타협하는 소시민의 성향을 함축하고 있다.

- ① 대용(代用)은 다른 것의 대신으로 쓸을 뜻한다. 1연과 2연에서 노래한 '풀꽃에 대한 깨달음'이 '그렇다'라는 시어에 의해 응축되어 주제가 확산되고 있다.
- ③ '함초롬'은 '젓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을 뜻하는 부사이다.
- ④ '연연(戀戀)하다'는 '애뜻하게 그리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다.